

# 1769年版 「그레고리안聖歌集」

## 일본 동경神田의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

1984년 봄, 세계도서전시회 참관관계로 일본 東京에 갔을 때의 일이다.

며칠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혼자 뒤에 처져 일본의 서점가를 살살이 둘러보던 출판인 李起雄(悅話堂 대표)은 동경 神田의 고서점에서 바로 이것이다 싶은 '물건'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마치 그 서점의 상징물인양 진열장에 모셔둔 것이 불수록 탐이 나는 책이었다. 그레 일 단 안으로 들어가 주인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보니, 과연 눈짐작에 어긋나지 않게,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그레고리안聖歌集」이 아닌가.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家寶같은 책으로서, 자기네 서점의 연륜과 격조를 증거하는 자랑이라는 것이 주인의 설명이었다.

지금 이기웅씨가 애장본으로 아끼는 「그레고리안聖歌集」과의 첫 상면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그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그후 여러 달을 기다려야 했다. 아마 그런 사연이 있었기에 이 책에 대한 그의 애정이 남다른지도 모른다.

첫 상면 이후, 그 책을 꼭 한국에 가져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그는 다시 그 서점에 찾아갔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가격을 알아보니, 200만엔이라고 한다. 여행자에게 그만큼 돈이 있을 턱도, 또 달리 변통할 수단도 없어 일단은 미련만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평소 한국과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제일교포 친지를 통해 흥정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점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 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네 서점의 상징물로 절대 팔 책이 아

니며, 가격도 설마 사려고 들기까지야 하겠냐는 생각으로 짐짓 그렇게 부른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중간에 선 제일교포 친지가, 팔지 않겠다는 서점 주인의 완강한 태도에 꽤나 애를 먹었다. 그러나 어쨌든, 얼마에 팔겠다고 한 것이니 '국제간의 신의'를 위해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식으로 달래고 설득해, 결국 그해 가을에 「그레고리안聖歌集」은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됐다. 진본을 입수했다는 흥분으로 오동나무를 짜서 보관함을 만드는 부산을 떨기도 했는데, 그 서점에서는 자기네 가보를 한국에 '시집'보내면서 온가족이 모여 제대로의 격식을 갖춘 '송별식'을 거행, 아쉬움을 달랠라고 한다.

이런 곡절을 거쳐 이기웅씨의 책이 된 「그레고리안聖歌集」은, 그 입수에 얽힌 개인적 사연 못지 않게 책 자체로서의 가치 또한 소중한 책이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빛깔이 다.

「그레고리안성가집」의 일반적인 관례대로 악보와 라틴어 가사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우선,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책의 존재양식을 보여 준다. 1769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발행했다는 刊記에서 보듯, 아직 책의 대중적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18세기 유럽의 책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가를 알려주는 드문 예다.

가로 35cm×세로 50cm 크기에 두께만도 10cm에 이르는 육중한 부피, 목판에 羊皮를 덧입힌 표지, 표지 귀퉁이의 금속장식, 그리고 영구보존이 가능한 手製종이 등이 당대 유럽의 책의 존재양식을 보여 준다. 즉, 이 책은



「그레고리안聖歌集」의 표지와 본문. 악보와 라틴어 가사가 함께 실려 있다.

단순한 '진본'의 차원을 넘어서서, 책이 독서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품, 혹은 오브제로 존재하던 때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구나, 신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교회에서 불러지던 그레고리안성가의 종교의례적 측면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 책은 神聖物로 여겨졌을 가능성까지 있다. 제작의 측면에서도 그레고리안성가는 원래 교회의 祭儀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인만큼, 이 책 역시 극히 한정된 판본으로 나왔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 점은 물론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확정지을 문제이긴 하다. 가령, 악보와 라틴어 가사의 인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이 신성물로 여겨졌음은 거의 분명하리라는 것이 이기웅씨의 생각이다. 당대의 사정이 우선 그렇고, 간간이 드러나는 촛농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200여년 동안의 보존상태가 극히 양호해, 이 책의 사용과 보관에 기울인 종교적 경건성을 엿보게 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음악사의 측면에서도 이 「그레고리안聖歌集」은 큰 의의를 갖는다. 단선률의 典禮聖歌로서 그레고리안성가가 갖는 음악사적 가치가 이른바 '화성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음악계에서 특히 각광받는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는 판이한 記譜法상의 특징과 함께, 로마가톨릭교회의 그레고리우스1세 이래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레고리안성가의 곡조와 가사가 어떤 변모양상을 드러내는데 대해 이 책은 소중한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종교학과 음악학, 그리고 서지학에 걸쳐 과학적 검증들이 집중될 때 비로소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이 「그레고리안聖歌集」은, 18세기 유럽의 교회와 교회음악,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근대유럽의 길목에서 책은 어떤 양상으로 존재했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가치를 확실하게 지닌다.

— 강철주 기자

普成社 서울·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内 전화 719-0784

# 글 더 잘쓰기 총서

- ① **글의 비밀**  
心理言語學者/金炳元 저  
글은 누구나 더 잘 쓸 수 있다. 그러나 면이 글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비밀을 깨쳐야 한다. 저자는 그의 다년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그 비밀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다.  
값 3500원
- ② **논픽션 쓰는 법**  
헤이즈B·제이콥스/金炳元 옮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즐겁게 해주는 논픽션을 구성하는 일은 하나의 예술이다. 독자는 이 예술을 터득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작가인 제이콥스와 만날 것이다.  
값 4000원
- ③ **소설의 방법과 인식**  
伊藤整/李基炳 옮김  
전후 두 세계의 문화관이 일시에 태풍처럼 불어닥친 일본 문단에서 저자는 그 두 사조를 수용 비판 소화하여 일본적 문학을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일본 전후의 명저로 뽑힌 책.  
값 4500원
- ④ **추리소설 쓰는 법**  
미국 추리소설작가협회/高廷基 옮김  
추리소설은 문장의 장르중에서도 특히 훈련받은 재능과 구성의 센스가 요건된다. 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 작가들의 저술과 한문학 수업의 체험과, 추리소설의 골격이 되는 네가지 요소의 관계를 들어가며 자상하게 서술한다.  
값 4500원
- ⑤ **동화 쓰는 법**  
월리엄 리와인담/李相琴 옮김  
특히 저자는 아동심리학과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세계를 묘사할 것과 동화를 쓰기 위해선 어떤 자료를 모으고 이용할 것인가 등을 저자, 편집자, 독자의 입장에서 친절히 정리했다.  
\*근간
- ⑥ **그림책 쓰는 법**  
엘렌E·M로버츠/金正 옮김  
작가의 지망생은 물론, 이미 노력한 작가라도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림책의 원칙, 기법, 그림책의 효용 등을 체계화했다. (원색그림다수수록) 값 5000원
- ⑦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엘렌F·심버그/고정기 옮김  
바른손엔 가정, 왼손엔 가사(家事), 그리고 또 하나의 손으로 작가로서 훌륭히 활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한 주부로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일 없이 문장을 쓰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근간